

사진기자회 '한국출판사진전' 열려

한국사진기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출판사진부 회원들의 작품을 모은 '한국출판사진전'이 오는 4월 4일부터 9일까지 동방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린다. 문의전화는 775-1234.

사회과학출판인 두 명 검찰에 구속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두 명의 출판인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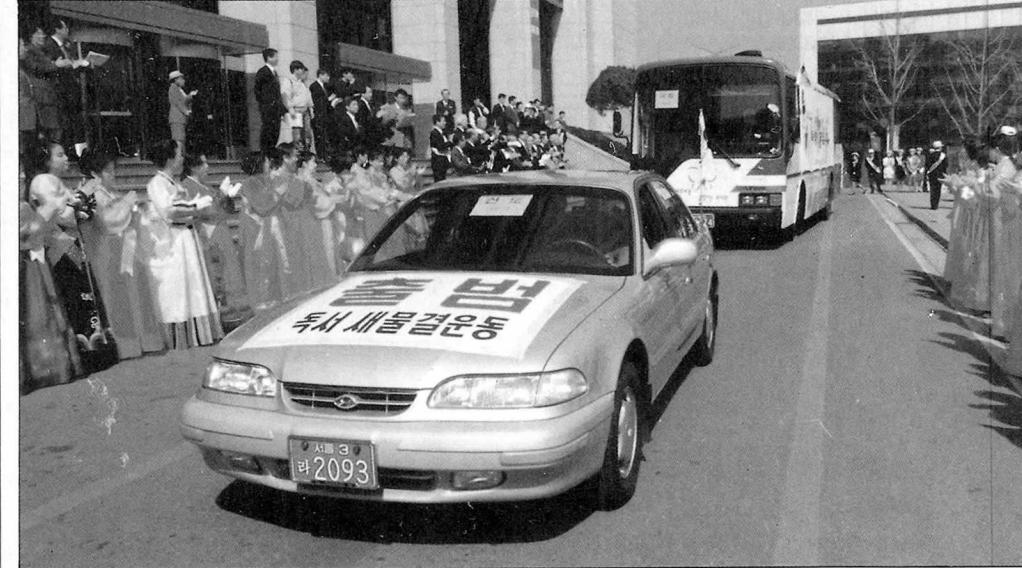
검찰은 지난 3월 21일 일빛출판사의 이성우씨를 구속한 데 이어 23일에는 힘출판사의 김연인씨를 연행했다. 이번에 문제시 된 책은 두 출판사에서 펴낸 「사회주의자의 실천 1·2」「노동자의 경제학」「실천철학」「지배와 항거」 등 14종이다. 출판인 두명을 구속한 검찰은 문제시된 해당 도서 1500여 권을 압수했다.

한편 민주출판노동조합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지난 3월 24일 "문제시 된 책들은 출간된 지 3~7년이나 지난 책들"이라며 "출판단 암을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작권법 개정, 교과서보상금 인정

우루과이아운드 지적재산권협정과 향후 개방압력에 대비해 저작권법이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교과서 저작에 대한 보상, 저작권 인접권 기한 연장, 편집물의 범위 확대, 벌금 규정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독서새물결운동 출범기념식이 지난 3월 31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동도서관의 카페레이드.

"책읽기는 문예부흥운동의 기초"

지난달 31일 국립중앙도서관서 '독서새물결운동' 출범기념식 열려

책을 읽는 국민, 책을 읽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독서새물결운동' 출범기념식이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문화체육부 후원으로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도서관·교육·문화·언론·출판계 및 청소년·여성계 등 사회 각계 인사 5백 여명이 참석, "독서력이 국력이다" "읽고, 쓰고 생각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독서운동의 불을 당겼다.

기념식은 독서새물결운동 출범선포식, 현판식, 이동도서관 책 전달 및 서울시내 카페레이드, 독서봉

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대행사로 전자책과 점자도서 전시회와 국악공연이 벌어졌다.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선포식에서 개회사를 낭독한 정원식 위원장은 "정보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문화적 역량 축적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독서새물결운동은 국제 경쟁력 배양, 창조적 사고력 함양에 목적을 두고 시행될 것"이라고.

독서새물결운동은 국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달성키 위해 94년 발전의 해, 95년 확산의 해, 96년 성숙의 해, 97년 정착의 해 등 시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된다. 김낙준 집행위원장이 낭독한 선포문에서도 이

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선포문 또한 독서새물결운동이 책읽기운동을 통한 문예부흥운동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이민섭 문화체육부 장관은 "독서양태가 변화되고, 영상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책의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면서 "독서새물결운동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서새물결운동은 독서환경 조성, 독서방법 및 대상 개발, 독서정보 안내, 독서생활화, 독서공간 확보, 청소년 독서진흥, 해외 한민족 동질성 회복 등의 세부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교과서보상금은 기존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겸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5년 후부터는 이들 교과서의 저자들도 보상

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작권인접권은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적용된다. 이밖에 편집물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거해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저작권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잡지목록 실은 「잡지정보」 창간

국내에서 발간하는 월간 잡지의 목록을 소개하는 월간지 「잡지정보」(잡지정보사, 대표 최종태)가 3월호로 창간됐다.

창간호에는 4백 여종의 월간지를 성격별로 38개로 분류한 뒤 각 잡지의 표지와 목차를 실었다. 출판사는 창간호 4천5백부를 도서관, 기업체 등에 무료 배포하고 앞으로 회원을 모집, 6개월 후부터는 유가지로 바꿀 계획이다.

문화체육부추천도서목록 발표

문화체육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6회 「문화체육부추천도서」 목록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책은 총류 「한국의 속담용례사전」 외 3종을 비롯해, 역사 8종, 문학 32종, 예술 4종, 종교 철학 11종, 과학기술 16종, 사회과학 16종, 아동 청소년 만화 19종 등 모두 110종이다.

出版企劃翻譯

(중국도서기획 번역전문)

《全分野·全種別》

세계출판정보학회

•新着原書·뉴프로젝트 多量保有

代表 黄秉國

(前 숙대교수·출판사·기획실장·중국학 전공)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0단지 31동앞

전화: 645-7052

Pd pub.
design

북디자인·광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심볼마크·로고서체 디자인
브로셔 디자인

전화(02)953-0621



"책을 감싸고 있는 표지는 책의 내용을 은유한다"

커버스토리는 책의 개성과 정신을 표현하려는 자존심들이 모여 책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출판 전문 디자인 집단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4-3
TEL. 326-1075 FAX. 326-1075

비·주·업·커·뮤·니·케·이·션·의·출·발

•도서상품권•



보낼수록 좋은선물
받을수록 기쁜선물

한국도서보급(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295-15
TEL: 852-4769/FAX: 852-4768
152-0111